



사업장에서의 A형간염 유행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산업의학전문의 / 장 규 진

A형간염의 개요

A형간염은 Picornavirus의 일종인 Hepatitis A virus에 의한 급성 간장 질환이다.

소아기에 감염되면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대부분 평생 면역이 되지만, 성인기에 감염되면 발열,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과 함께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감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으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드물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전파는 분변-구강 경로를 통한 ‘사람 간 전파’ 양상 및 식품이나 식수를 통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양상을 나타낸다. 잠복기는 2-7주 정도로 긴 편이며, 평균 3-4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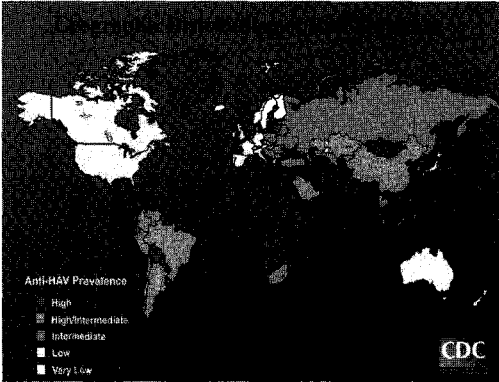
진단은 혈액에서 IgM 항체를 증명하는 것인데, 통상 노출 5-10일 후에 확인 가능

하다. 또한 대변에서 바이러스를 증명할 수도 있다. 이 질환은 6개월 간격으로 2회의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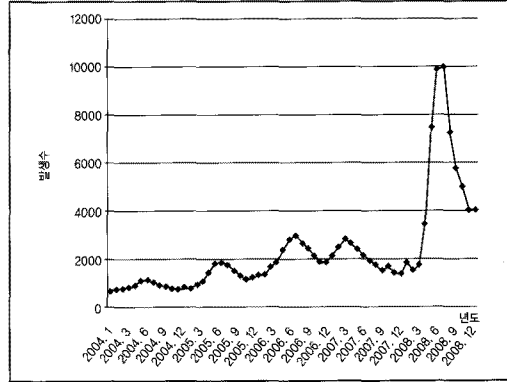
A형간염의 역학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US CDC) 등의 역학적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이 고유행 지역이며, 남아메리카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등이 중등도 유행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그림1).

우리나라는 과거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소아기에 대부분 무증상 감염을 앓은 후 항체를 평생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위생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이후인 1990년대부터는 소아기 때 감염을 앓지 않고 계속 항체가 없는 상태로 성인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10-30대의 항체 양성률이 10%대를 넘지 않



〈그림 1〉 A형간염의 세계적 분포



〈그림 2〉 2004-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A형간염 환자 수

는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 최근 10-20년 사이에 위생상태 및 경제수준이 급격히 좋아진 국가들은, 인구집단 중 감수성이 있는 젊은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유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2004-2008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형간염 통계자료를 보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질병관리본부(KCDC)는 표본감시체계에 서도, A형 간염이 2009년 들어 수도권을 중

심으로 전년에 비해 1.5-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A형 간염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 및 연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들어 사업장에서 A형간염 유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사업장 A형간염들의 전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역학조사를 통

〈표 1〉 2009년 사업장 A형간염 현황

발생 시기	발생 지역	발생 장소 유형	확진 환자 수
2009.3	인천	소규모 공장	3명
2009.4	서울	사무실	11명
2009.5	경기	소규모 공장	8명
2009.5	인천	소규모 공장	2명
2009.6	서울	사무실	2명

해 영세한 공단 내 식당의 음식물 및 직원들 간의 전파를 주요 경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공단 지역의 영세한 식당들의 경우, 보건위생당국에 개설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따라서 위생 상태도 불량한 곳도 많아서 A형 간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장이나 사무실은 업무 차질 등의 이유로 병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람 간 전파의 조기차단에 실패하기도 한다.

물론 A형간염의 경우 잠복기가 수 주 이상으로 긴 편이어서 증상이 발현한 이후의 조치는 이미 늦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므로 인지 이후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격리조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결론

통상 성인 A형간염 환자들은 1-2주 이상의 입원치료 및 심한 경우 수 주 까지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유행이 있을 경우 근로자 개인의 건

강 및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주 측에서도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및 가정 등에서 A형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장이나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의 유행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혹은 공동 이용 식당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회식 시 날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식 시 술잔 돌리기를 하는 등 위생적이지 않은 행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A형간염 예방 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건당국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따라서 20~30대 등 젊은 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A형간염 항체 검사 및 항체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